

제8장 숲과 야생동물

■ 교재요약

- 우리나라에서 야생동물 서식지는 토지 유형에 따라서 산림, 해양, 습지, 정주공간, 특수지역 등 5개 유형으로 나눈다. 산림은 다시 식생기후대와 지리적 특성에 따라서 아한대 산림, 온대 낙엽활엽수림, 고위평탄면, 인공림, 난대상록활엽수림으로 6개 단위로 구분한다. 해양은 인간의 접근성에 따라서 해안 절벽과 무인 도서의 숲 2개 단위로 나눈다. 습지는 물이 흐르는 하천숲과 정체하고 있는 산림습원의 숲 2개로 구분한다. 정주공간의 숲은 마을과 도시인 2개 단위로 구분하고, 특수지역에는 비무장지대가 속한다. 5개 유형 12개 단위의 숲에 서식하는 야생동물 종 구성은 서로 다르다.
- 인간이 정주하는 마을은 생물다양성이 가장 높은 곳이며,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정주하면서 형성한 고유의 경관으로서, 다른 서식지보다 다양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 생물다양성이 높다.
- 산림 중 아한대 고산 지역에는 우는토끼, 산양, 멧닭, 잣까마귀, 진홍가슴, 갈색양진이, 바늘꼬리칼새가 서식하며, 온대 낙엽활엽수림에는 반달가슴곰, 멧돼지, 삵, 하늘다람쥐, 갯참서, 큰유리새, 딱따구리류, 올빼미류, 박새류, 술새류가 서식한다. 고위 평탄면에는 멧새류, 휘파람새가 주로 분포하며, 인공림에 청설모, 박새류, 방울새류가 우점한다. 난대 상록활엽수림에는 노루, 팔색조, 삼광조가 서식하며, 해양의 해안 절벽에는 흰꼬리수리, 매, 무인 도서에는 섬개개비가 분포하며 습지 중 하천에는 오리류와 백로류가 대표적이며 산림습원에는 물총새와 검은댕기해오라기 서식한다.
-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 역사는 ‘풍요-이용-보호-수렵 관리-생태계 관리’의 단계를 거쳤다. 고려시대 매사냥은 조공문화를 암시하고, 조선시대의 포호제도와 임수 문화는 백성을 위한 야생동물 관리 방식을 엿볼 수 있다.
- 숲 속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관찰동물에 적절한 장비와 복장을 갖추고 오감을 활용하여 마음을 열고 숲의 세세한 부분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로부터 시작한다. 조류의 경우 ‘필드 마크’와 새가 자주 나타나는 곳을 숙지하고 있으면 쉽게 관찰할 수 있다.

■ 연습문제

1. 우리나라의 대표적 야생동물 서식지로서 나눈 산림의 단위에 해당되는 것은?

- ① 비무장지대 숲 ② 무인도서 숲 ③ 고위평탄면의 숲 ④ 하천과 산림습원의 숲

해설 : 산림은 아한대 고산지역, 온대 낙엽활엽수림, 고위평탄면, 인공림, 난대상록활엽수림을 단위로 포함한다. (교재 165쪽)

2. 우리나라 대표적 숲의 유형별로 대표 야생동물을 알맞게 설명한 것은?

- ① 난대상록활엽수림: 멧닭, 잣까마귀, 진홍가슴
② 온대낙엽활엽수림: 팔색조, 삼광조, 노루
③ 고위평탄면: 휘파람새, 멧새류
④ 인공림: 청설모, 박새류, 갈색양진이

해설: 아한대 고산 지역에는 우는토끼, 산양, 멧닭, 잣까마귀, 진홍가슴, 갈색양진이, 바늘꼬리칼새

가 서식하며, 온대 낙엽활엽수림에는 반달가슴곰, 멧돼지, 삵, 하늘다람쥐, 갯참새, 큰유리새, 딱따구리류, 올빼미류, 박새류, 솔새류가 서식한다. 고위 평탄면에는 멧새류, 휘파람새가 주로 분포하며, 인공림에 청설모, 박새류, 방울새류가 우점한다. 난대 상록활엽수림에는 노루, 팔색조, 삼광조가 서식하며, 해양의 해안 절벽에는 흰꼬리수리, 매, 무인 도서에는 섬개개비가 분포하며 습지 중 하천에는 오리류와 백로류가 대표적이며 산림습원에는 물총새와 검은댕기해오라기 서식한다.(교재 165~167쪽)

3. 야생조류가 만드는 둥지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

- ① 인공새집과 둥지는 같아서 인공새집을 만들어 주면 모든 조류가 번식할 수 있다.
- ② 둥지는 야생조류 종별로 고정적 형태로 만들고 있으며 변화하지 않는다.
- ③ 야생조류의 둥지 형태 중 지면에 둥지를 만들 경우, 산좌를 만들지 않는다.
- ④ 둥지는 인간의 태반과 같은 것으로 소중한 집과는 다르다.

해설: 야생조류의 둥지는 새집과 다르며, 계속 진화하고 있으며 둥지재료를 쌓은 후 산좌를 만들어 알을 낳아 품어서 부화한다.(교재

4. 다음은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서식지 유형 중 어떤 것에 대한 설명인가?

크기는 작지만 산림생태계에서 생물 다양성 부양과 다양한 생지화학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양서류, 파충류의 생활사에서 중요한 산란처이며, 조류와 포유류에게 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다.

- ① 하천 ② 산림습원 ③ 고위평탄면 ④ 저수지

해설: 산림습원은 면적은 작지만, 양서류, 파충류의 생활사에서 중요한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5.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서식지 유형 중 정주공간에 대한 설명 중 올바른 것은?

- ① 우리나라는 정주 문화가 발달하여, 고려시대 이후 이동화전민은 거의 없었으며 정착 화전민이 다수였다.
- ② 마을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정주하면서 형성한 고유의 경관으로서, 다른 서식지보다 다양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와 생물다양성이 비교적 높은 서식지 이다.
- ③ 정주공간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에 대한 위협요인은 인간의 영향이 대부분이며, 인간의 영향을 배제하고 절대적 보전만이 정주공간에 서식하는 야생동물을 보호할 수 있다.
- ④ 라우텐자흐는 한국의 경우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정주 생활하는 부분이 다소 독특한 부분이지만, 동남아시아의 화전민과 큰 차이점이 없다고 보았다.

해설: 라우텐자흐는 한국의 화전민이 동남아시아 화전민과는 다르게 이동화전민으로부터 정착화전민에 이르기까지 연속적이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6.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다음 소형포유류 중 꼬리가 가장 짧고 주로 높은 곳의 숲이 우거진 곳에 서식하는 설치류는 ?

- ① 흰넓적다리붉은쥐 ②대륙밭쥐 ③등줄쥐 ④멧밭쥐

해설: 가장 꼬리가 짧은 쥐는 대륙밭쥐이며, 주로 높은 산림의 울창한 곳에서 서식한다.(교재

184쪽)

7. 야외에서 새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새들이 즐겨 찾는 장소를 알고 있으면 좋다. 다음 중 그 장소로서 적당한 것은?

- ① 배설하는 장소 ② 통과하는 장소
③ 물을 먹는 장소와 목욕하는 장소 ④ 번식하는 둥지

해설: 먹이 먹는 장소, 물을 먹는 장소, 목욕하는 장소, 쉬는 장소, 조망하는 장소, 하늘 등은 새들이 즐겨 찾는 곳이다. 번식하는 둥지는 번식기에만 관찰할 수 있으며, 통과하는 장소는 이동시기에만 볼 수 있다. 조류의 배설하는 장소는 일정하지 않다. (교재 188~189쪽)

8. 몸의 크기나 형태, 깃털, 부리, 발의 색 등 새의 외견상 특징이 가장 확실한 단서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 ① 몸의 특성 ② 분류의 키 ③ 필드 마크 ④ 실루엣

해설: 필드 마크(Field mark)는 ‘그 새’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단서를 말한다.(교재 190쪽)

9. 다음 설명은 조류의 둥지 모양과 이용하는 새를 연결한 것이다. 가장 올바른 것은?

- ① 까치-지면 ② 흰배지빠귀-숲지붕층에 공모양 둥지
③ 제비-인가에 그릇모양 ④ 꿩-나무구멍

해설: 까치는 숲지붕층에 공모양으로 둥지를 짓고, 흰배지빠귀는 숲지붕층에 그릇 모양으로, 제비는 인가에 그릇 모양으로, 꿩은 지면에 둥지를 짓는다. (교재 176쪽)

10. 다음은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 역사상 어떠한 것과 관련이 높은 가?

2010년 11월 16일 케냐 나이로비에서 제5차 유네스코 모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인류의 전통문화인 이것은 총 11개국이 공동신청한 다국간에 공유하는 첫 세계유산이다.

- ① 가곡 ② 대목장 ③ 포호제 ④ 매사냥

해설: 매사냥에 관한 설명이며, 포호제도는 조선시대에 호랑이 피해를 줄이고자 호랑이를 포획하여 백성을 위한 제도이다.

정답 1. ③ 2. ③ 3. ④ 4. ② 5. ② 6 ② 7 ③ 8 ③ 9.③ 10. ④

■ 심화학습

1. 야생동물 현황

－ 우리나라는 동물지리구상으로 구북구에 속하며, 우리나라에 서식하거나 중간 기착지로 이용하는 야생동물은 조류의 경우 450여 종이며, 포유류는 80여 종이다. 우리나라의 급속한 경제 개

밭은 야생동물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대형 동물인 호랑이는 1922년 이래 자취를 감추었고, 표범, 늑대, 승냥이, 여우, 곰도 거의 사라져 버렸다. 더구나 야생동물은 한약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남획됨에 따라 그 수는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 대형 포유류 및 고차포식자의 감소에 따라 소형, 중형 포유류가 증가하여 농작물과 경작지에 피해를 주고 있다. 들개와 들고양이는 일부 지역에서 무리를 지어 돌아다니며 덩불숲에 등지를 짓는 소형 조류 및 소형 포유류 등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다.

2. 야생동물 서식지

- 우리나라의 숲은 백두대간이라는 큰 산줄기로 연결된다. 우리나라의 숲은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지만,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서식지별로 나누면 아한대 고산지역, 온대 낙엽활엽수림지역, 고위평탄면, 인공림, 난대 상록수림으로 나눌 수 있다.
- 우리나라에서 아한대 고산지역(subalpine forests)은 설악산과 지리산과 한라산 일부지역에 있다. 잣까마귀(*Nucifraga caryocatactes*), 멧닭(*Tetrao tetrix*), 갈색양진이(*Leucosticte arctoa*), 우는토끼(*Ochotona hyperborea*), 바늘꼬리칼새(*Hirundapus caudacutus*)가 서식한다.
- 온대 낙엽활엽수림대의 울창한 숲에는 딱따구리류(Woodpeckers)와 올빼미류(Owls), 솔새류(*Phylloscopus* spp.)가 서식하여 전형적인 산림성 조류군집을 나타낸다. 우리나라 남해안 도서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상록수림에는 해안절벽에 매(*Falco peregrinus*), 흰꼬리수리(*Haliaeetus alicilla*), 참수리(*Haliaeetus pelagicus*), 가마우지류(*Phalacrocorax* spp.), 팽이갈매기(*Larus crassirostris*), 바다직박구리(*Monticola solitarius*)가 번식하고 섬개개비(*Locustella pleskei*)와 개개비사촌(*Cisticola juncidis*)은 밀집한 상록수림에서 번식한다.
- 고위평탄면지역은 백두대간의 마루금 사이에 해발이 비교적 높은 곳에 있는 평탄한 지역으로, 대관령을 비롯한 몇 개 지역이 있다. 이 지역은 강한 바람으로 인해 큰키나무가 자라지 않고 작은키나무 등 덩불과 초본류가 있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휘파람새(*Cettia diphone*)와 멧새과 조류(*Emberiza* spp.)가 흔한 지역이다. 붉은뺨멧새(*Emberiza fucata*)와 검은딱새(*Saxicola torquata*) 등 개활지와 평지를 선호하는 조류가 번식하는 곳이다. 이 지역은 개발 영향으로 쉽게 바뀌어 백두대간 마루금 사이 몇 지역에 남아 있을 뿐이다.
- 습지와 하천 주변 숲은 야생동물이 서식할 수 있는 곳이다. 하천은 하천 자체뿐만 아니라 하변 서식지(riparian habitat)를 포함하고 있어서 산림 및 경작지로부터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걸러 주거나 이동 속도를 더디게 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하천은 하류와 상류로 생물이 이동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이기도 하다. 하천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동물은 수달, 오리류, 백로류이며, 이 외에 물까마귀, 물총새, 할미새류, 꼬마물떼새, 쇠제비갈매기를 볼 수 있다. 백로류(Herons and Bitterns)는 숲에 등지를 집단으로 콜로니(colony)를 형성하여 짓지만, 먹이는 하천과 습지에서 대개 수서곤충, 어류, 양서류 등을 주로 이용한다. 산림습원은 우리나라에 강원도 양구의 대암산 용늪, 울산의 무제치늪 등 크기는 작지만 산림생태계에서 생물 다양성 부양과 다양한 생지화학적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이다. 이 서식지는 주로 양서류, 파충류의 생활사에서 중요한 산란처이며, 조류와 포유류는 서식하는 데 필요한 물을 얻기도 한다.
- 우리나라의 정주공간은 정주와 유목의 과정에서 나타난 산물로서, 마을과 도시에서 인간과 관계속에 고유한 동물상을 보유하고 있다. 마을에는 고라니, 족제비가 서식하였고, 뜸부기와 쇠뜸부기사촌은 논과 하천의 습지에서 번식하였으나 최근에는 관찰하기 힘든 실정이다. 번식기에는 마을숲에 솔부엉이, 소쩍새, 원앙, 찌르레기가 큰 나무에 등지를 틀며, 파랑새, 청호반새, 후투티, 피꼬리가 인가 주변에서 관찰된다. 초가집이 없어지기 전에는 참새의 밀도가 높았으며, 지금도 제비류는 마을에서 볼 수 있다. 멧새류와 멧비둘기는 밭의 지면에서 먹이를 먹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검은딱새, 종다리, 뽕종다리, 할미새류, 때까치를 이 서식지 유형에서 볼 수 있

는데, 논두렁이나 논가의 덩불숲에 둥지를 튼다. 모내기를 위해 논에 물이 고이면, 원앙과 흰뺨검둥오리가 먹이를 찾아먹고 가을철 곡식이 익으면 산림의 등줄쥐가 들판에서 먹이를 찾는다. 백로류는 논가에서 미꾸라지와 물고기를, 물총새와 호반새는 하천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다. 마을은 우리 민족이 한반도에 정주하면서 형성한 고유의 경관으로서, 어떤 서식지보다 다양하고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와 생물 다양성이 가장 높은 서식지이다. 도시 지역에서 서식하는 조류는 세력권을 형성하기 위해 소음에 대비하여 소리(song)의 강도가 큰 새가 더 유리하게 살고, 우리나라의 도시숲에는 직박구리, 박새, 집비둘기, 참새, 피꼬리, 멧비둘기, 어치 등이 서식하고 있으며, 황조롱이는 맹금류이지만 인공구조물에 둥지를 짓고 서식하고 있다. 도시숲은 덩불층이 없어서 덩불층에 둥지를 짓는 새들의 종수가 낮고, 도시숲 면적이 작아질수록 종수가 빠르게 감소한다.

- 우리나라의 비무장지대는 1953년 휴전협정으로 생겨난 군사 완충지대이다. 비무장지대로의 출입은 매우 제한되어 있어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관속식물 1,170종, 이 중에 41종의 한국 고유종과 40종의 멸종 위기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척추동물로는 어류 83종, 양서류 10종, 파충류 13종, 조류는 7종의 멸종 위기종을 포함한 최소 130종, 포유류 51종이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무척추동물은 372종의 기록이 있다. 비무장지대는 해양, 하천, 산림, 휴경지 등 다양한 서식지 유형을 포함하고 있는 특수한 경관지역이다.

3. 숲의 이용과 야생동물

- 우리 눈에는 경계선이 보이지 않지만 새들은 자기들의 생활공간을 정하고 서로 자기 영역을 지키며 살고 있다. 이러한 생활공간을 형성하는 조건으로 나무의 종류, 숲의 높낮이, 숲의 모습(밝은가 어두운가, 주위가 트였는가 가려졌는가 등) 등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큰키나무의 숲 지붕층에 쇠박새, 진박새, 오목눈이가 서식하고 있다. 중층의 나무줄기부분에서 동고비를 볼 수 있으며, 중층의 가지와 잎에 있는 곤충을 주로 박새가 먹이로 이용하고 있다. 진박새는 큰키나무, 중간키나무, 작은키나무의 숲 바로 안쪽부분에 주로 서식하며 침엽수를 좋아한다. 곤충박이는 모든 층을 골고루 이용하며, 딱따구리류는 나무줄기와 고사목에서 먹이를 즐겨 먹는다. 조릿대, 국수나무 등 덩불층과 지면에는 붉은머리오목눈이, 꿩, 노랑턱멧새, 숲새가 서식한다.
- 조류는 숲의 어느 곳에 둥지자원을 주로 만드는데 따라 나무구멍 둥지 조류(cavity nesters), 숲 지붕층 둥지 조류(canopy nesters), 덩불층 둥지 조류(bush nesters), 지면 둥지 조류(ground nesters)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숲 지붕층과 덩불층에 둥지를 만드는 조류는 둥지 입구가 하늘로 향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둥지 모양에 따라서 그릇 모양과 컵 모양으로 짓는 조류로 나눌 수 있다. 둥지 모양에 따라서 그릇 모양과 컵 모양으로 짓는 조류로 나눌 수 있다. 그릇 모양은 백로류, 지빠귀류, 직박구리, 붉은배새매, 까마귀, 어치가 대표적이며, 컵 모양은 붉은머리오목눈이, 휘파람새, 개개비가 대표적이다. 둥지 입구가 하늘로 향하지 않는 조류 중 공 모양으로 둥글게 천장을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까치와 팔색조가 여기에 속한다.

4.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

- 우리나라의 야생동물 관리 역사는 개략적으로 선사시대-삼국시대, 고려시대-조선시대, 농경산업시대, 산업시대, 환경시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선사시대에는 수렵 및 어로생활을 통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이용하였으며, 주거양식도 유목생활이 주를 이루었다. 그러나 집단정주문화가 발달함에 따라 생존을 위해 야생동물을 가축화하기 시작하였다. 삼국시대에 이미 가축화(개, 말, 소, 돼지, 양, 가금)가 보편화되었으며, 동물의 분비물을 이용한 비료법을 개발하였고, 토테미즘(totemism)을 이용하여 동물을 신성하게 여기는 문화가 발달하였다. 이 시대는 야생

동물이 풍요로웠던 시절로 야생동물에 대한 여러 가지 설화 및 문화자원으로서 야생동물의 흔적을 엿볼 수 있다. 삼국시대에 이미 매사냥이 있었으며, 매사냥은 중앙아시아가 근원지로 인도, 페르시아, 아시리아, 이집트 등 고대문명에 영향을 주었고, 만주지방의 숙신족(肅愼族)에 의해 전승된 후에 중국 전역에 전파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매사냥과 관련된 응방제도는, 몽골이 고려를 복속하게 한 뒤에 몽골에서 들어와 그들이 조공품으로 요구하는 해동청(海東靑, 사냥매)을 잡아 길러서 몽골에 보내기 위해 설치하였다. 조선에서도 응방을 그대로 두고 매의 진상을 돕게 하였는데, 태종 때에는 응방을 줄이기도 하였고, 폐단이 많아서 점점 줄었다. 한편, 조선시대 포호(捕虎)제도는 태종 때부터 군사훈련의 일환으로 호랑이를 포획한 것을 일컫는다. 이 제도는 ‘위민제해(爲民除害)’ 정신에 의하여 백성을 호랑이 등 맹수로부터 지키고, 일부 산림지역을 개간하여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하는 야생동물 관리방안으로 보인다. 조선시대에는 경국대전에 임수(林藪)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현재의 마을숲과 유사한 개념이다. 임(林)은 나무가 모인 숲을 의미하며, 수(藪)는 초목이 뺏뺏이 우거진 습지나 수풀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수(藪)는 동물을 양육하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으로, 마을 앞에서 오리, 염소 등 동물을 사육한 것을 의미한다.
-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을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일제에 의해 많은 야생동물이 남획되었으며, 철도 및 도로의 건설과 같은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서식지의 단편화(habitat fragmentation)가 나타났다. 1938년 5월 조선 보물고적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에 의하여 진돗개가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것을 효시로 하여, 정부 수립 후에 일제시대의 천연기념물을 그대로 계승하여 지정하였다. 조선시대와 고려후기에도 야생동물을 함부로 이용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었으나, 천연기념물제도를 도입하여 종 자체에 대해 법적 보호를 시작한 것은 이 시기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국토는 험박하게 되었으며, 두루미류·따오기·황새 등 습지를 서식 기반으로 하는 야생동물이 위협을 받았다. 이 시대에 야생동물에게 대표적인 위협요인은 단편화(fragmentation)를 들 수 있다.
- 1970년대에 시작한 새마을운동은 우리나라의 농촌경관에 서식하는 생물상에 변화를 가져온 하나의 계기가 되었으며, 초가집·논·흙길의 농촌경관을 아스팔트를 비롯한 불투수층이 다수 있는 농촌경관으로 바꾸었다. 1970년대 이후 도시화와 이농인구 급증으로 우리나라 농촌의 모습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댐감보다는 석유에 의존한 연료체계의 변화로 숲이 우거졌으나, 적절한 관리가 되지 않아서 일부 종이 우점하는 생태계로 변화하였다. 주거공간과 밀접한 관련을 가졌던 야생동물은 점점 밀도가 줄어들었으며, 특히 참새(Tree Sparrow, *Passer montanus*)의 밀도는 이 시대를 전후하여 변화가 나타났다.
- 1983년에 조수 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이 지정되어 야생조수를 보호, 증식하고 자연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여 국민의 쾌적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이 수립되었다. 수렵제도는 1982년부터 순환수렵장을 이용하는 수렵인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렵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 OECD 국가의 수렵제도 비교·연구, 수렵인의 의식 및 행태에 관한 연구, 조선전기 수렵문화에 관한 연구가 실시되었다. 건전한 수렵문화의 유지를 유도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순환수렵제, 차등수렵제 등의 도입으로 국민의 수렵욕구를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 1990년대 이후 개와 고양이를 가정에서 반려동물(companion animal)로 많이 키우면서 그중 일부가 야생화된 들개와 들고양이가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또 황소개구리(American Bullfrog, *Rana catesbeiana*)와 이스라엘황어(Leather Carp, *Cyprinus carpio*)를 비롯한 외래종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었다. 지구 온난화가 지속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기록되지 않은 야생동물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생태계에 미칠 영향이나 피해에 대해서는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

- 한편 우리나라는 멸종위기 동식물을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으며, 식용이 금지된 야생동물, 포획 금지 야생동물을 지정하여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들개와 들고양이를 비롯한 유해 야생동물과 외래종에 대한 개체군 관리도 실시하고 있다. 지자체 중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에서는 보상제도를 도입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농민들의 농작물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을 하고 있다.
- 최근 기후 변화에 따라 야생동물의 번식생태가 변화하고 유해 야생동물이 증가하여 야생동물 중 자체뿐만 아니라 생태계의 구성원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인자를 고려하는 생태계 관리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5. 숲 속 야생동물의 관찰

- 숲 속 야생동물 중 포유류는 발자국, 분, 흔적 등 간접적 관찰 방법으로 서식을 확인할 수 있다. 배설물에 대한 크기와 모양을 통해서 종을 구분할 수 있다. 소형포유류는 포획을 통하여 할 수 있지만, 하천 주변에서 다년생 식물의 줄기를 공 모양으로 말아서 만드는 멧밭쥐의 둥지를 찾을 수 있다. 박쥐류는 잠을 자는 굴에서 찾을 수 있다.
- 조류는 쌍안경과 망원경을 사용하여 관찰할 수 있고, 숲에서는 7~8배의 배율이 좋다. 새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전면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약간의 움직임이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소리가 날 경우 당황하지 말고 어느 방향에서 들리는지 파악한다. 특히, 잎이 무성해지는 초여름에는 새들이 잘 울기 때문에 보는 것과 함께 귀를 사용한다면 좀 더 쉽고 편리하게 조류를 관찰할 수 있다. 새들이 즐겨 찾는 장소로는 먹이 먹는 장소, 물을 먹는 장소와 목욕하는 장소, 쉬는 장소와 조망하는 장소, 하늘을 들 수 있다..
- 숲 속에서 야생동물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관찰동물에 적절한 장비와 복장을 갖추고, 오감을 활용하여 마음을 열고 숲의 세세한 부분을 관찰하며 기록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조류의 경우 ‘필드 마크’와 새가 자주 나타나는 곳을 숙지하고 있으면 쉽게 관찰할 수 있다.

■ 용어해설

- 숲의 공간구조: 야생동물은 숲을 다양한 층으로 인식하여 이용하는데, 공간적으로 수직, 수평적으로 분할하여 이용하고 시간적으로 일일 단위, 계절 단위로 분할하여 이용한다. 이 숲의 공간구조가 다양할수록 다양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
- 매사냥: 총, 활 등의 도구로 새 또는 짐승을 포획하는 사냥과 다르게 매를 길러서 꿩을 사냥하는 방식으로 간접 사냥 방식이며,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공동체 행위로써, 인류의 전통문화 중 하나이다. 2010년 11월 제5차 유네스코 모형문화유산정부간위원회 회의에서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총 11개국이 공동신청한 다국간에 공유하는 첫 세계유산이다.
- 서식지: 어떤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생태학적, 환경학적 지역
- 백두대간: 백두산에서 비롯하여 지리산까지 한반도의 뼈대를 이루는 산줄기이며, 오랜 세월을 거쳐 우리 민족이 한반도 지형에서 적응하여 형성된 문화체이다.
- 나무구멍 둥지 조류: 나무구멍(cavity)에 둥지를 짓거나 이용하는 조류를 말하며 딱따구리류, 박새류, 올빼미류, 찌르레기류, 원앙, 흰눈썹황금새 등이 속한다.
- 반려동물(companion animal): 1990년대 이후 개와 고양이를 가정에서 많이 키우면서 일부가 야생화되어 들개와 들고양이로 되어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여서, 기존에 애완동물보다는 인생의 또 다른 반려자로서 동물을 가까이하자는 취지에서 이르는 말